

야권 “국회가 개헌 주도해야” 반발…여권도 곤혹

21일 정부안 발의...청와대 드라이브에 불붙은 개헌 논의

청와대(發) 개헌 드라이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정국을 달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 문제가 정국의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게 된 여야는 앞으로도 개헌을 두고 대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형국이다.

일단,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기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293명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총돌을 빚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화 한 이날도 첨예한 입장차만 그대로 드러냈다.

그간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적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수 121석의 여당이 무리하게

한국당 “대국민 기만쇼” 공세

평화당·정의당까지 반대

3당 원내대표 회동 입장차 확인

국회 표결을 시도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의 원칙적 합의를 이루게 함으로써 개헌 동력을 살려놓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미래당(30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에 민중당(1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개헌에 우호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까지 다 합쳐야 175석으로 재적 3분의 2 이상인 196석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모두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 입장이 분명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부 개헌안 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해 별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문제를 포

함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져 향후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 기류도 읽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현실적으로 국회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역풍이 불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가 아예 날짜를 못 박아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대국민 기만쇼’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힌 다른 야당들도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청와대 주도의 개헌은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루위에 안 보는 것이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리려는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동욱기자 tuim@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김영록·신정훈 내일 출마 선언...전남지사 선거구도 요동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 이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전남도지사 선거구도가 재편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3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하고 전남지사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14일 사직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뒤, 15일 퇴임식을 마치고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방침이다.

김 장관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개호 의원이 당과 정부를 위해 정말 어려

운 결단을 했다”며 “이 의원의 헌신을 바탕으로 전남의 미래를 바꿔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남지사 후보 전략공천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전략공천 여부를 떠나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도 13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5일 전남지사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신 비서관은 “이미 문 대통령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오늘 청와대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신 비서관은 김 장관의 출마와 관련,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보 조정설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노관규 전 순천시장, 민주당 입당을 신청할 예정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만채 교육감의 입당 허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전남지사 후보 적합도 신정훈-장만채-김영록 順

쿠키뉴스 여론조사

6·13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군 여론조사에서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3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이(가)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에 따르면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신 비서관은 27.5%로 1위를 달렸고, 이어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 20.5%, 김영록 농림부 장관 18.1%로 뒤를 이었다. 기타 11.7%, 없음 13.4%, 잘 모르

겠다는 답변은 8.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전남도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10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810명(총 통화시도 2만9347명, 응답률 2.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 “장만채 입당 반대”

“당 정체성과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이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9명의 전남도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장만채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체 도의원 29명 중 19명이 참여하며, 담양·

함평·장성·영광 등 이개호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화순·나주 등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지역 출신 의원, 비례대표 의원 등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장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과 경선참여 반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문행주 의원(화순)은 “장만채 교육감은 지난해 조기 대선 국면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초청,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강연을 했다”면서 “민주당 전남지사 후

보로서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 측은 “위기 속 전남교육을 타개하고 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유력 정치인과 대선주자들을 초청해 특강을 하면서 우리의 실상을 알리려고 했다”면서 “안 후보 이외에 송영길 의원 등이 특강을 했고 다른 대선주자들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암군 YEONGAM-GUN

「2018영암 방문의 해,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2018 영암왕인문화축제

2018. 4. 5 목 ~ 4. 8 일 / 4일간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4.5 (목)	4.7 (토)
<p>10:00 - 12:00 왕인박사 춘향제 (왕인사당)</p> <p>12:30 - 13:30 왕인어린이 재롱잔치 (주무대)</p> <p>13:30 - 14:00 활발한 매직쇼 (주무대)</p> <p>14:00 - 17:00 왕인박사 학술 강연회 (영월관2층)</p> <p>14:30 - 16:30 남주골 어울마당 (주무대)</p> <p>18:00 - 18:30 왕인's 아리아 (주무대)</p> <p>18:30 - 19:00 개막행사 「왕인의 빛! 세계로!」 (주무대)</p> <p>19:00 - 21:00 개막축하방송(MBC) (주무대)</p>	<p>10:00 - 10:30 삼흥난타공연 (주무대)</p> <p>10:00 - 16:00 제4회 천자문·경전 성독대회 (주무대)</p> <p>10:30 - 11:30 태권도&기예무단 공연 (주무대)</p> <p>11:30 - 12:00 보부상 경매쇼 (주무대)</p> <p>12:00 - 13:00 미니퍼레이드 왕인행차 (축재장 일원)</p> <p>12:00 - 14:30 백제 차문화 시연회&토코콘서트 (주무대)</p> <p>14:30 - 15:00 삼호 대동 강강술래 (주무대)</p> <p>15:00 - 16:30氣운선장사 페스티벌 (너른마당)</p> <p>16:30 - 18:30 왕인청소년 페스티벌 (주무대)</p> <p>18:30 - 19:00 보부상 경매쇼 (주무대)</p> <p>19:00 - 21:00 KBS 라이브 뮤직쇼 (주무대)</p>
4.6 (금)	4.8 (일)
<p>10:00 - 12:00 왕인학생 예술대회 (축재장 일원)</p> <p>12:00 - 13:00 미니퍼레이드 왕인행차 (축재장 일원)</p> <p>12:00 - 14:00 왕인박사 추모 한시백일장 (주무대)</p> <p>14:30 - 15:30 갈곡들소리 (주무대)</p> <p>15:30 - 17:30 영암 화진놀이 「氣찬글 진칫날」 (너른마당)</p> <p>17:30 - 18:00 4월꽃 빛꽃프로포즈 (주무대)</p> <p>18:30 - 19:00 힐링 팸퍼라 공연 (주무대)</p> <p>19:00 - 20:30 드림콘서트 with 이승환 (주무대)</p>	<p>10:00 - 12:00 구림 벚꽃길 경기대회 (주무대-구림마을)</p> <p>11:00 - 12:00 도포제 줄다리기 (주무대)</p> <p>12:30 - 13:00 보부상 경매쇼 (주무대)</p> <p>13:00 - 13:30 히어로 뮤직 갈라쇼 (주무대)</p> <p>14:00 - 15:30 왕인박사 일본가요 퍼레이드 (주무대-상대포)</p> <p>14:30 - 15:10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주무대)</p> <p>15:10 - 16:00 왕인 전통연희단 공연 (주무대)</p> <p>16:30 - 17:00 4월꽃 빛꽃프로포즈 (주무대)</p> <p>17:30 - 18:00 드림싱어즈 오페라 공연 (주무대)</p> <p>18:00 - 18:30 폐막행사 「영암의 빛! 미래로!」 (주무대)</p> <p>18:30 - 20:30 구림의 밤(CJ호남방송) (주무대)</p>